

큰스님 33인 출가·수행·깨침 이야기

문윤정 논설위원, '선지식을 찾아서' 연재 책으로 펴내

“난 세상에서 제일 바보인 것 같아. (법문) 들을 것 없어. 저 푸른 자연이나 보고 가거나.”

“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식이라 생각해.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인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앞길을 밝혀줄 스승을 찾고 있다. 때로는 깊은 산중에서 빗속을 뚫고 눈을 맞으며, 때로는 도심 선방에서 스승들을 만나 겸손한 자세로 묻고 또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들은 전혀 엉뚱한 선문답으로, 또는 명쾌한 한마디 말로, 눈앞이 환히 밝아지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활구(活口) 법문을 들려준다.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문윤정 수필가가 우리 시대의 스승 33인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담은

책 <마음이 마음에 묻다>를 펴냈다. 본지의 인기 코너인 '선지식을 찾아서' 연재를 위해 지난 3년간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만난 많은 스님들 중에서 인생의 지남(指南)이 되어주는 큰스님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인 성수 스님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법을 전하고 있는 법인 스님, 40년간 성철 스님을 시봉한 천재 스님, 백만 배 수행으로 인생을 바꾼 해인 스님, 비구니계의 최고령 선승인 해해 스님, 그림으로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는 정현 스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는 큰스님들이 직접 치열한 구도행과 실천적 삶을 통해 체득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준다. '마음이 마음에 묻는' 구구절절한 질문들에 대해 큰스님들은 삶의 고뇌와 번뇌를 녹여주는 자유와 행복의 법칙을 들려준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낯설, 시비, 분별, 갈등, 다름, 불안, 망상, 그리고 두려움 등에 쫓기느라 탁해져버린 심성을 환히 밝혀 마음의 평안(平安)을 선사한다.

마음이 마음에 묻다 | 문윤정 지음 | 오픈하우스 | 1만8000원 김성우 기자



성수 스님.



고산 스님.



무비 스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 길잡이

김승석 변호사의 사념처관 수행기

“이제 부처님 법(法)에 의지해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스스로 법을 보는 눈이 뜨인 것 같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흔들던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과 계으름, 들뜸과 회한, 회의적 의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야말로 행안할 수 없는 법열(法悅)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 없이 홀로 수행한 명상 체험기 <나 홀로 명상>에서 저자인 김승석 변호사는 2500년 전 부처님의 생생한 율음이 담긴 방대한 빠알미 경전과 논서가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띠빠타나(四念處觀: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함) 명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마음의 변화 등을 경전과 논서를 통해 점검하고 있는 <나 홀로 명상>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책은 저자가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내고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겪은 큰 좌절을 사념처관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 재가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수행지침이 될 전망이다.



김승석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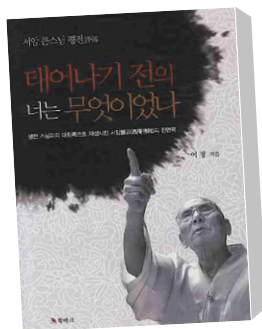
저자는 책에서 수십 년 동안 제주불교신문 등에서 불교 관련 글을 쓰면서 사람과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열렸으나 막상 괴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 때 저자는 다행히 초기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얻으신 사띠빠타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야말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수행과정이 실감나게 전개된 셈이다.

10여년간 초기불교의 명상법을 통해 충만한 기쁨과 행복, 건강을 얻은 저자는 현재 변호사업 외에 제주불교신문 편집인, 제주비평발행인, (사)공동체적식개혁운동 제주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아 의식개혁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주말에는 농장에서 과수나무, 화초 등을 가꾸고 있고, 일상 속에서 호흡관법을 행하며 선정의 기쁨도 누리고 있다. 토굴인 출리산방(出離山房)에서 도반들과 소규모 명상 모임을 갖고 있는 저자는 앞으로 아란마를 숲속에 '아란야 명상센터'를 세워 사념처관을 전할 계획이다.

나 홀로 명상 | 김승석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누구나 앓으나 서나 부처를 가지고 있다”

대화록으로 재생시킨 '서암불교'의 진면목



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머니의 태(胎) 안에서 존재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암 스님(1914-2003년)의 일생을 스님과의 생전 대화록 바탕으로 재구성한 평전 <대어나기 전의 너는 무엇이었나>가 나왔다. 이 책에서 서암 스님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래마음을 등지고 살기 일췌인 요즘, 불교는 여전히 마음의 정체를 밝히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길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머니의 태(胎) 안에서 존재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앓으나 서나 항상 스스로 일어나는 자기의 부처(성품)를 가지고 있다. 일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라”며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에 대해 이런 주석을 달고 있다.

“생명의 실체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천지 만물이 생기기 이전의 공경(空劫)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여기에는 원래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차별의 이름이 없다. 본바탕에서 한 생각이 어긋나 사생육도(四生六道)가 벌어지는 것이다.”

서암 스님은 1979년 문경 봉암사 조실로 추대되자 봉암사를 조계종 종림선원으로 지정되게 했다. 서암 스님은 1975년 제10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사태를 수습한 뒤 2개월만에 사퇴했고, 1991년 원로회의 의장을 지내고 1993년 성철 스님 열반 후 제8대 조계종 종정에 취임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4년 종단분규가 일어나자 종정직을 사임하고 종단마저 탈퇴한다고 공표한 후 토굴에서 수행했다. 무슨 종단이니, 종정이니 하는 개념의 감옥에 갇혀서는 탈출할 수 없었던 보살행을 완성하고자 떠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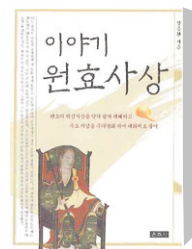
그러나 스님은 종단과 제자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2001년 봉암사 조실로 복귀, 2003년 3월 29일 봉암사 영화실에서 열반했다. “한 말씀(열반송) 남기시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그 노인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는 말만 남기고 본래자리로 돌아갔다.

고등학교와 대학시절 출가와 환속을 거듭하며 서암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저자 이청 작가는 ‘서암불교’를 제자리에 세워놓겠다는 열정으로 취재를 계속해오고 있다.

대어나기 전의 너는 무엇이었나 | 이청 지음 | 북마크 | 1만3000원 김성우 기자

원효사상 정수 해설

핵심 사상 소개



일본이나 중국에서 더 잘 알려진 한국의 대표 고승, 한국불교의 새벽을 연 원효(元曉) 대사는 100종 200권 이상의 저술(21종 26권만 현존)을 집필,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만 그 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깊고 넓은 사상의 바다를 들여다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대중적으로 풀어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원효 대사의 사상과 행적을 알아버치기 손자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을 통해 풀어쓴 책이 나왔다. 1990년부터 <원효 전서>와 <대승기신론> 관련 결전 번역에 매진해온 재야 학자 강승환 씨가 쓴 <이야기 원효사상>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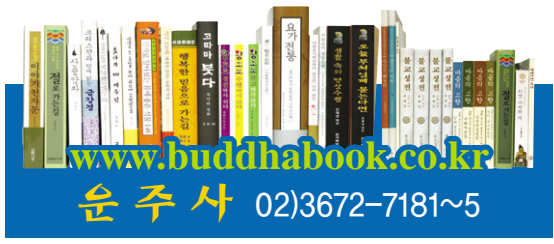
저자는 책을 통해 어렵거나 한자로 된 불교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했고, 원효사상을 몇 개 주제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야기 원효사상 | 강승환 지음 | 운주사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돌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5분 수행	현담	선
4	일곱 번의 직발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5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	한이음선원
6	부처되는 공부	우학	돌
7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진	마음의 숲
8	아벌로카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9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10	답답하면 물러라	법륜	정토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세기는 한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법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연속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연속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시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거제도 총명사 이미지부처명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명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명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텍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